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4호 【루계 제24717호】 주체103(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상업성 산하단위 지배인 박성옥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돌격대원들을 여러차례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연구원 정대현, 보조중재원 장청송, 단천철도병원 약국장 윤치범, 동평양전철대 수리공 김성철, 외교단사업총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연희는 들끓는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건설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세포땅을 사회주의청춘대지로 전변시키는데 한몫할 열의안고 국가검열위원회 일군인 우경훈은 로력적, 물질적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고 산하단위 로동자 한금녀도 이 사업에 공민적량심을 바쳤다.

은하지도국 부원 로광복은 건설에 함께 참가한 심정으로 지성다해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공사장에 보내주었고 대외경제성 양성생 박승혁,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원 김광선도 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왔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양시건재관리국 산하단위 부원 김기원은 세포땅의 전변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전력공업성 로동자 리영실, 평안남도대외봉사관리처 산하단위 로동자 조영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안고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평성경흥판매소 로동자 정경희는 대규모축산기지건설지원에서도 모범을 보였으며 개성인삼가공공장 로동자 림춘옥도 힘있는 후방사업으로 돌격대원들의 투쟁열을 적극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커다란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간직하고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꽁고위원회 결성식이 21일 킨샤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민주꽁고공산당,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등 정당, 단체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이며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앙드레로헤껠레 깔론다가, 부위원장으로 민주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오뗴떼 가스똥 음보요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오는 12월 17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인류자주위업의 결출한 령도자이시였던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서거 3돐을 숭엄히 맞이하게 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사회주의조선과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오늘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그이께서 몸소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의 나라, 인류의 리상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유산으로 되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굳건해진 조선의 현실은 진보적인류에게 주체사상의 승리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우리들은 이번 기회에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생애를 다시금 깊이 새겨보면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해나갈것이다.

회고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대원수 서거 3돐 스위스회고위원회결성식이 21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발표되였다.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당과 국가, 군대의 위대한 령도자, 천재적인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기 위하여 회고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행사들을 조직할것이다.

* *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전국위원회가 21일 메히꼬인민사회당청사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가, 부위원장으로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후안 깜뽀스 베가가, 서기장으로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친우협회 위원장 안드레스 가스까싼체스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에 대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받아안은 각지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세찬 격정으로 하여 뜨겁게 끓어번지고 있다.

수령복, 태양복은 민족의 대행운

김용진내각부총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고보니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또다시 북받쳐올라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외곡날조하려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버릴번 했던 반만년민족사였다.

그렇듯 파란만장의 세파에 부대끼던 우리 민족사가 단군릉발굴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통찰력에 의해 세계만방에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어찌 그뿐이던가.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에 대한 외곡된 력사자료들의 부당성을 까밝히시고 구석기시대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더욱 완벽하게 체계정립된 반만년민족사였다.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자자구구마다에 어려있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게 되였으니 끓어오르는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정녕 절세위인들의 령도아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이렇듯 세세년년 빛을 뿌리게 되였으니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태양복이야말로 민족의 대행운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다시한번 소리높이 온 세상에 웨친다. 탁월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를 높이 모셔야 민족도 력사도 빛난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평양민속공원 원장 리성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읽고 또 읽을수록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더욱 가슴 불태우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흥분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치좋은 대성산기슭에 대로천박물관인 평양민속공원을 건설할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강력한 건설력량도 마련해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달리는 야전차안에서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적은 그 몇번이였던가.

하기에 때로는 이른새벽에, 때로는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공사장을 찾으시며 훌륭하게 일떠선 평양민속공원의 오늘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다고, 건설을 몸소 발기하신 장군님을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그리도 절절하게 말씀하신것 아니랴.

참으로 우리 평양민속공원은 조선민족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시려는 절세위인들의 애국, 애족, 애민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참관자들에 대한 해설선전을 더욱 다양하게,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겠다. 또한 평양민속공원을 민족적색채가 뚜렷한 애국주의교양의 거점답게 더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2단계공사에서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나가겠다.

민족문화발전을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박사 부교수 전동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된것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조선민족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찌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를 찬연히 빛내여주시였을뿐아니라 반만년의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의 만방에 떨쳐주시였다.

력사에 묻혀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며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개건하도록 이끄시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민족의 재보로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주도록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겠는가.

이런것으로 하여 로작은 발표되자마자 우리 력사학자들은 물론 청년대학생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로작은 력사유적유물들을 적극 발굴복원하고 보존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강령적인 지침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통하여 당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민족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어떻게 불타야 하는가를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지금 우리 력사학자들은 사회주의 내 조국을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에 넘쳐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은 불후의 고전적로작에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화건설의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족문화유산에는 그 나라의 력사와 풍습, 그 지역 인민들의 지혜와 재능, 창조성 등이 깃들어있다. 다시말하여 그 민족의 력사를 체계화하는데서 민족문화유산은 없어서는 안될 나라의 재부이다.

이처럼 귀중한 력사유적유물들을 세월의 흐름속에 방임해둔다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몇몇 개별적인간들의 유흥이나 취미거리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력사유적유물들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해서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손만대에 끝없이 전해져야 할 민족의 재부인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존재가치가 희미해져가던 이 땅의 문화유산들을 하나하나 발굴복원하고 훌륭히 보존관리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 하여 민족의 넋이 흐려지고 자기 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력사가 이어지지 못하고있으며 많은 곡절과 진통을 겪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명철하게 밝혀줌으로써 매개 나라들의 민족문화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제시해주고있다. 참으로 로작은 우리 나라뿐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빛내이는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대강이다.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치리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장 룡주는 반만년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가치있는 유적유물들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산, 명승지들 그리고 후세에 길이 전해갈 천연기념물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자자구구마다에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뜨겁게 빛발치는 로작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빛내여나가는데서 우리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일군들이 지닌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우리는 해당 단위 일군들과 적극 협력하여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수집하고 그에 대한 심의등록, 평가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전국의 명승지들을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더 잘 꾸리겠다.

또한 옛 수도였던 평양의 민족유산들과 묘향산, 금강산을 비롯한 각지에 있는 우수한 민족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나가겠다. 이와 함께 나라의 전반적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중앙과 지방에 조직되여있는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황해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림창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황해북도에는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정방산과 선군시대에 새로 태여난 신평금강을 비롯한 명승지들과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어려있는 력사유적유물들이 많다.

우리는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면서 도안의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당면하여 정방산성 등에 대한 보수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겠다.

우리 도의 얼굴이 잘 살아나도록 사리원력사박물관과 민속거리를 더 잘 꾸리겠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이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고 력사유적과 박물관, 명승지들의 건설과 보수관리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

뿐만아니라 사리원력사박물관과 정방산 등에 대한 참관, 견학을 자주 조직하여 도안의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미풍량속을 잘 알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해나가도록 하는데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캄팔라도착

【캄팔라 10월 29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우간다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하여 29일 이 나라의 수도 캄팔라에 도착하였다.

강하국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도착하였다.

우리 나라와 우간다기발이 나붓기고있는 비행장에는 우간다인민방위군 명예위병들이 정렬해있었다.

김영남동지와 일행을 아수만키잉기 외무상대리, 외무성, 우간다인민방위군, 경찰의 관계성원들과 명경철 우간다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김영남동지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로 향하였다.

이에 앞서 김영남동지와 일행은 꽁고공화국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쥬스땡 꿈바 국회하원 의장, 알배르 은꾸아 외무성 부총서기를 비롯한 국회와 외무성의 관계성원들과 최철수 꽁고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수성천-수남천물길공사 진행 함경북도에서

얼마전 함경북도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수성천-수남천물길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청진시를 풍치수려하고 아름다운 항구문화도시로 보다 훌륭하게 꾸릴 애국의 마음안고 물길공사에 떨쳐나선 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0여리에 달하는 물길과 수문, 언제를 비롯한 수력구조물공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성천의 맑은 물이 수남천으로 흘러들게 됨으로써 수남천의 생태환경이 보다 깨끗해지고 하천주변 토지들과 살림집들이 큰 물피해를 받지 않게 되였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남천의 물을 공업용수로 리용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수남천에 부두를 건설하고 뽀트장을 꾸려 수남천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하게 변모시킬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를 비롯한 물관리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기 부분적으로 진행해오던 수성천-수남천물길공사를 도적인 력량을 집중시켜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물길공사 전구간을 밟아보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으며 설계와 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여러차례 협의회를 조직하고 공사력량편성과 설비, 자재보장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

김광호, 김청순동무를 비롯한 공사지휘부일군들은 공사가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공사량이 방대한 조건에 맞게 전투작전을 치밀하게 잘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지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의 련합기업소들과 각 공장, 기업소, 도급단위들에서 공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착공의 첫날부터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였다.

청진항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많은 량의 막돌을 짧은 기간에 마련하여 맡은 구간의 장석쌓기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도인민위원회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일념안고 제방쌓기를 시공의 요구대로 철저히 진행하였다. 도인민병원과 도고려병원, 도구강병예방원을 비롯한 보건부문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청진화학섬유공장, 청진제강소와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관공장, 청진시 청암, 신암, 포항구역에서도 공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맡겨진 공사과제를 질적으로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수력구조물건설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은 중기계들과 대형화물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여 막대한 량의 토량운반과 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였다. 특히 3일동안에 수백㎥의 토량을 처리하여 수력구조물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꼈으며 골재와 세멘트운반보장을 립체적으로 잘하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무넘이언제건설을 맡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은 숭고한 애국의 마음안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언제건설을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수문공사와 언제공사를 맡은 청진시의 시급단위들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도 공사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이들은 건설장주변에 골재생산기지를 꾸려놓고 건설에 필요한 골재보장을 배로 높이였다. 또한 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공정들사이의 련계를 긴밀히 하여 타입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리였다. 그리하여 수력구조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건설기일을 훨씬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지금 도에서는 물길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낀 기세드높이 수남천바닥가시기와 호안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인민의 참된 복무자, 심부름군으로 키워주시여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는 정력적인 령도로 일군들을 혁명의 지휘성원들로,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로 키우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나라의 주인이며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복무자, 심부름군입니다.》

인민대중의 복무자, 심부름군!

이보다 더 값높은 부름이 또 어디에 있으랴. 고귀한 그 부름을 되새길수록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절세위인의 모습이 안겨온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념려해주고 당을 따라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분발하여야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잘사는 그때에 가서 오늘을 생각하며 푹 쉬려고 한다. …

인민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열렬하시면 우리 장군님 그리도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겠는가.

예로부터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자식들을 낳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품어안아 보살펴주며 어엿이 키워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로고를 일컫는 말이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사랑속에서 어엿이 성장하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니, 그 말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것이며 어머니의 사랑을 한생토록 못 잊어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뜨겁고 열렬한 그 사랑으로 일군들을 참된 인민의 충복, 성실한 복무자로 키우시였다.

어느해 가을날에 있은 일이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언제나 그러하시였듯이 그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이민위천을 평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시며 그 길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신 위대하신 **김일성**대원수님,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로지 인민을 위한 헌신의 세계를 그리도 감동깊이 펼치시며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화원을 만발하게 펼치신 우리 수령님은 정녕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태양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격찬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며 나의 정치철학입니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이 빛발치는 말씀이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일해나갈 때만이 당과 뜻을 같이하고 당을 진실로 따르는 참된 일군으로,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군으로 될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실로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여 인민의 충복들의 무성한 숲을 가꾸시였다.

때로는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느라 그토록 바쁘시건만 한 일군을 위해 천금같은 시간을 다 바치시고 때로는 벅찬 중임도 기꺼이 맡겨주시며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을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줄 아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토록 고결한 뜻을 평생 간직하시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이민위천의 력사를 줄기차게 엮으시였다.

《대중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실한 심부름군이 바로 참된 일군이다.》,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일군은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

위대한 장군님의 주옥같은 명언들은 우리 일군들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 고귀한 지침으로 되여 그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삶을 빛내이도록 끝없이 고무추동하고있다.

이 땅 어디에나 새겨져 빛나는 글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을 헤치시며 고귀한 좌우명을 일군들의 가슴속에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불멸의 글발에 실려 어려온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개건된 대동문영화관과 옥류관, 청류관을 찾으시였다. 곳곳을 일일이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일군들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라는 말과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군당책임비서》, 《우리 지배인》, 《우리 관리위원장》…

친근한 부름들에 비낀 절세위인의 뜻이 사람들의 심금을 더욱 후덥게 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우리》라는 말에 대하여 류다른 애착을 가지고 때없이 속으로 곱씹어 외워보군 하는데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 단위 책임일군을 우리 아무개라고 부르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렇게 불리우는 일군들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자신의 혁명전우이며 진짜 동지라고 말할수 있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열렬하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겠는가. 우리 일군들을 인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로 키워 내세워주시려는것이 그이의 뜻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직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이다. …

말씀에 깊은 뜻을 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당이 바라는대로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로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어머니, 그 부름속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뜻에 우리 가슴 더더욱 후더워오른다.

언제인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슬하에 많은 자식을 둔 어머니의 심정그대로 모든 일군들을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인민의 충복으로 키우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을 자식들에게 안겨주고싶어하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며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가리지 않는것이 어머니의 성품이라고 하시며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티없이 깨끗하고 웅심깊으며 진실하다고, 그래서 자식들은 기쁠 때에도 어머니를 찾고 슬플 때에도 어머니를 찾으며 다 자라서도 어머니를 찾는것이라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일군들의 심금을 울린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열두자락치마폭에 온갖 시름 안고있어도 그것을 락으로만 여기며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어머니, 그 어머니처럼 우리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 충복으로 키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였고 그이의 삶과 투쟁의 전부였다.

그토록 숭고한 뜻, 이민위천으로 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진정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시여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쉬임없이 헤치시는 천리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우에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화폭들을 떠올리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친근한 어버이의 모습을 뵈옵고있다.

한없이 자애롭고 친근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 절세위인들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무궁토록 부강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깊이 새겨주신 자력갱생의 정신

고귀한 지침, 숭고한 모범

주체100(2011)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종합조종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의 전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선군조선의 위용을 떨치며 거창하게 일떠선 웅장한 구조물들과 대형설비들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라고, 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였는가고 하시며 애국의 땀과 마음을 바쳐 나라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워가는 흥남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이께 한 일군은 2호가스발생로건설을 우리가 생산하는 철판을 가지고 우리 식으로 제기일내에 무조건 끝내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결의가 좋다고, 생각도 잘하였고 결심도 잘하였다고 거듭 치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라는 진리가 깊이깊이 새겨지였다.

기뻐하신 사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마을에 나갔던 한 일군이 장판지를 해결해달라는 농장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온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좋다고, 자신께서 오늘 주인을 만났다고, 인민생활의 주인을 만났다고 기쁨에 넘쳐 거듭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을 믿음넘친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인가 협동농장마을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뜨락또르를 보내달라, 비료를 보내달라고 제기하는 일군들은 많이 보았지만 밥사발을 해결해달라고 제기하는 일군은 처음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제야 인민생활의 진짜 주인을 만났다고 그토록 기뻐하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그런데 오늘 동무가 장판지를 해결해달라는 농촌마을 안주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무엇을 바라고있는가는 그것이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라는 진리가 깊이깊이 새겨지였다.

자신의 락이라고

몇해전 12월의 일요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가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에게 오늘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관리운영정형을 직접 료해하여보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유희장의 관리운영정형을 일일이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희시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급양봉사망들도 잘 운영되고있다는 일군의 말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였다. 유희시설들쪽으로 다가가시여서도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유희시설료금은 얼마인가 등을 일일이 물으시며 각근한 정을 기울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군은 인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책임일군이 내가 일요일 추운 날에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찾아온데 대하여 고맙다고 하는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 자신의 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고결한 뜻으로 절절히 울리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후더워올랐다.

본사기자

현지지도길에서 하신 당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군중을 대하고 그들과 친숙하게 어울리며 사소한 특전, 특혜도 바라지 않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상좋은 일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어느해 봄날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점심시간이 되여 마을로 내려가실것을 말씀드리는 군의 책임일군의 간절한 청도 마다하시고 강기슭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시였다.

오늘 점심은 별맛이라시며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수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구만라고 말씀하시였다. 귀기울이니 양수기의 고르로운 동음이 간간이 들려왔다.

방금 지나오신 양수장에서 새 양수기조립을 끝내고 모를 낼 논에 물을 대는것 같다는 일군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동무들이 지금까지 거기 있었으면 식사를 못했을것이라고 하시며 못내 걱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동무들이 식사를 못하였는데 우리만 식사를 하니 안됐다고, 그 동무들이 작업중에 있는 양수기를 운전하느라고 여기에 올수 없다면 거기서라도 식사를 할수 있도록 무엇을 좀 준비하여 가져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친히 그릇에 음식을 담으시고는 일군의 등을 떠미시였다.

일군이 후더운 마음을 안고 떠나려고 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께서 보냈다고 말하지 말라고, 자신께서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할수도 있겠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갔다오라고 이르시였다.

양수장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이께서 예견하신대로 그들은 식사를 못한채 물을 퍼올리고있었다. 그들은 음식그릇을 들고 들어선 군의 책임일군을 보고 무척 놀라와하였다. 그들은 책임비서동지가 이렇게 밥까지 가져다주었는데 오늘 계획은 문제없다며 식사를 맛나게 들었다.

이윽하여 그들은 책임일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일군은 더이상 가만있을수 없었다.

그 음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동무들에게 보내주신것이라는 일군의 말에 그들은 그게 정말인가고,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는가고 격정을 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는 자기들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며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하겠다고 굳게 결의다지였다.

일군으로부터 그 사연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감심하신 어조로 양수공동무들이 내가 보낸 식사를 받고 나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대를 이어 전해가겠다고 하였다는데 우리 인민들은 정말 좋은 인민들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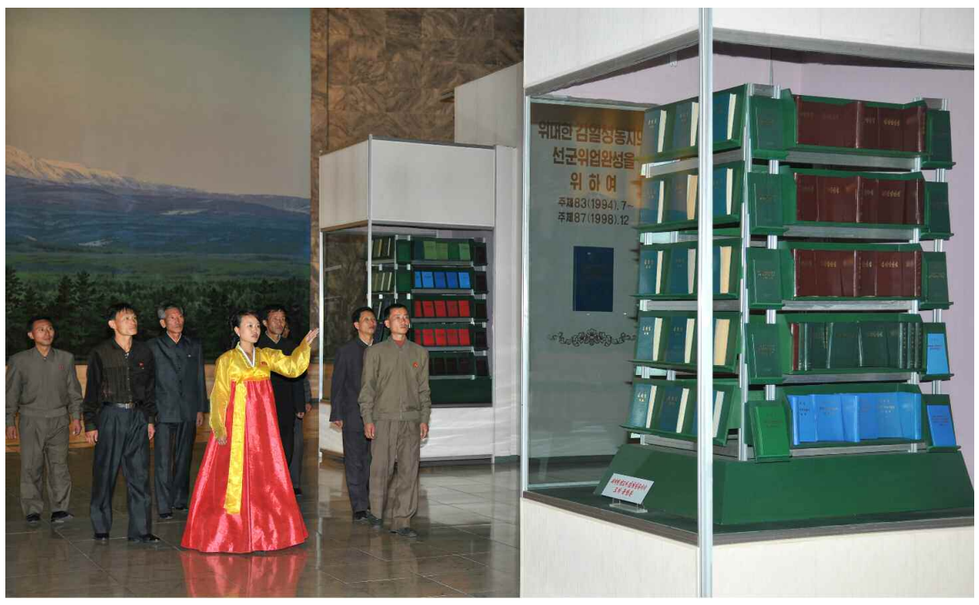
양수장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인민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 우리앞에는 참으로 할 일이 많다. 인민들을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살게 하는것이 나의 리상이다.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자면 우리의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민들을 돌봐주어야 하며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차례지게 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가 배부를 때 인민들이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생각해야 하며 자기가 뜨뜻이 지낼 때 인민들이 춥게 지낼수 있다는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인민의 충복이 될수 있다. …

인민의 충복이 되라!

크나큰 의미를 담고 절절히 울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고귀한 지침, 삶의 좌우명으로 일군들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지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주체사상로작전시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승리를 확신할 때

서철

《혁명이란 어렵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시말하여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용기를 잃고 비관하며 우울해져서는 혁명가로 될수 없습니다. …

혁명투쟁에서 때로는 실패할수도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실패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국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실패에 실망할것이 아니라 더욱 혁명적락관주의를 발휘하여 실패를 회복하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학습하면서 나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머나먼 남해바다가로부터 수천리 험준한 산길을 걸어 당중앙을 찾아, 최고사령부를 찾아 들어온 사람들, 혈혈단신 심심산중이나 절해고도에서도 당과 수령의 숨결을 느끼며 어떠한 곤난이라도 이겨내는 당의 혁명전사들, 만경창파 무서운 폭풍속에서 표류하면서도 오직 당과 수령을 믿고 용감히 싸워 끝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나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였던 1939년 겨울에 있은 일을 감명깊이 회상하지 않을수 없다.

1939년 겨울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나는 이때처럼 혁명의 승리를 확신할 때 극복하지 못할 그 어떠한 난관도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느껴본적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남패자회의에서 적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수세에 빠져 쫓겨다닐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도처에서 놈들의 《공세》를 좌절시키며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을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내가 속해있던 제1방면군은 남패자회의후 남만의 몽강과 화전일대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활동하고있었다.

193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제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전선이 고착되자 자기의 정예부대까지 동원하여 《후방안전》을 위하여 유격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을 감행하여나섰다.

적들의 집요한 대공세에 대처하여 제1방면군은 여러개의 소부대로 나뉘여 적을 분산시키면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내가 책임진 소부대는 지휘부와 떨어져서 매일과 같이 적들과 가렬한 전투를 진행하고있었다.

실로 우리앞에는 형언할수 없는 엄혹한 고난이 꼬리를 물고 닥쳐왔다.

앞뒤에서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의 집중적《공세》를 제압해야 했으며 거기에다 우리는 나무가 얼어터지는 혹한과 굶주림을 이겨내야 했다.

이러한 때에 지휘부와의 련락지점에 나가있던 박영순동무로부터 우리는 뜻하지 않은 비보를 받게 되였다. 그것은 제1방면군 지휘부성원들이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는 비통한 소식이였다.

그들을 다시는 만나볼수 없게 된 우리는 적들의 2중3중의 포위속에서 상부나 린접과의 아무런 련계도 없이 단독으로 싸워나가야 했다.

비분과 적개심으로 하여 마지막 한사람까지 적들과 결단을 내자고 이를 갈던 대원들도 전도가 막연했던지 나의 얼굴만 묵묵히 쳐다보았다.

비록 적은 성원으로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한 대오를 책임진 나의 심중은 자못 복잡하여졌다.

혁명을 위하여 당장이라도 목숨을 바치려는 각오가 나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었다.

그러나 조성된 정황속에서 부닥친 시련을 극복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때 우리 대오는 몇십명에 불과했다.

이 적은 인원으로 몇십, 몇백배에 달하는 적들의 포위속에서 어떻게 싸워나아갈것인가? 어떻게 이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갈것인가?

나는 온 정신을 모두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있었다.

이러한 때 나의 머리속에는 남패자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뵙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순간 캄캄하던 눈앞이 삽시에 환해지면서 그이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쟁쟁히 울려왔다.

《앞으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간고해질수 있소. 그럴수록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원쑤와 싸워야 하며 싸워서 승리해야 하오.》

나는 생각하였다. 바로 이 말씀은 이러한 정황을 예견하고 하신것이다. 그이의 사상대로, 그이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실천하는가 못하는가에 의하여 우리들의 앞길이 달려있고 승패가 달려있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추호도 동요함이 없이 부닥친 난관을 극복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이의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아 원쑤격멸에로 나아가야 한다. …

나는 대원들에게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나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나의 결심을 지지하는 대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그런데 우리 대원들중에는 남패자에서 헤여진 후 그 누구도 그이께서 어느곳에 계신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우리들은 그이께서 제2방면군을 령솔하시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의 력량이 몇곱절이나 더 집중되여있는 국경연안으로 또다시 진출하셨다는것만을 알고있을뿐 그후의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령관동지께서 반드시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원쑤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계시리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충만되여있었다.

우리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길을 막더라도 그이를 반드시 찾아가야 하며 그길만이 앞으로 최후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우리는 그이께서 계시리라고 짐작되는 동쪽을 향하여 행군을 개시하였다.

적들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욱실거렸다.

낮에는 적들이 욱실거리기때문에 눈속에서 머리만 내놓고 하루종일 어둡기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야간에도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할수 없었다. 적들의 불무지사이를 은밀히 빠져 불과 몇발자국만 나가면 또 불무지가 나타나군 하였다. 어떤 때에는 날이 새도록 불무지사이를 빠져다니다가 지난밤 떠난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때도 있었다.

적들은 보병뿐만아니라 항공대까지 동원하여 아군의 종적을 찾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으며 삐라를 뿌리고 폭탄을 퍼부으면서 우리들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곤난한것은 식량문제였다.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대원들은 더욱 지쳐갈뿐이였다.

나는 우리 부대가 화전일대에서 활동할 때에 어느 한 깊은 수림지대에 식량을 묻어둔것이 생각나서 대원들을 인솔하고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지친 몸을 가눔하지 못하고 눈우에 쓰러지던 대원들도 며칠만 더 가면 식량이 있다는 말에 모두 기운을 내여 걷기 시작하였다.

한길이 넘는 생눈길을 헤치며 식량을 묻어두었던 곳이라고 짐작되는 골짜기에 이르러 우리는 언땅을 파헤쳐가면서 식량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식량은 없었다.

다음 골짜기에도 그리고 또 그다음 골짜기에도 식량은 없었다.

위만군에서 반변해 넘어온 병사들과 일부 신입병사들은 《도대체 어데로 가는가?》, 《김사령이 어데 계시는지도 모르고 넓고넓은 만주땅에서 어떻게 그이를 찾아낸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의식수준이 어린 그들의 심정을 나는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미리 약속한 길도 아니며 단 며칠간에 도달할수 있는 평탄한 길도 아니였다. 몇달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간고한 길이였다.

나는 사령관동지께서 계신 곳을 알아보는 동시에 식량문제도 해결하고 대원들도 며칠간 휴식시킬 목적으로 송화강류역에서 활동하고있는 다른 소부대를 찾아 행군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화전땅을 지나 계속 굶으면서 행군하던 대원들은 하나둘 눈우에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부축여 세우면 몇발자국 걷지 못하고 또 쓰러지군 하였다.

눈속에서나마 단 하루밤도 발편잠을 자지 못한 대원들은 행군하면서도 졸고 어떤 대원들은 얼굴이 퉁퉁부어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군복은 다 해여지고 신발창은 떨어져서 나무껍질로 얽어매여 신지 않으면 안되였다.

손과 발은 얼다 못하여 껍질이 일었고 쓰린지 아픈지 감각조차 없었다.

드디여 우리는 송화강상류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한 소부대성원들을 만날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이들도 사령관동지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전혀 모르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 소부대의 대부분의 성원들은 이미 적들의 《토벌공세》를 맞받아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되였고 몇명 남지 않은 대원들도 거의 부상을 당하였거나 동상을 입고있었다. 지칠대로 지친 그들은 장차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우리가 그처럼 기대를 걸고있던 식량도 떨어진지 이미 오랬다는것이다.

일부 대원들가운데서는 고난을 참지 못하고 대오에서 떨어지려는 기색도 나타났다.

무엇으로 이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것인가?

나는 생각해보았다.

(지금 곤난한것은 식량문제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신상태다. 우리가 신심을 잃지 않고 견딜수 있는 정신적량식을 우선주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며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가지고 이 길에 나선 혁명전사라는것을 깨우쳐주어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사령관동지의 곁으로 갈수 있으며 반드시 적과 싸워 이긴다는것을 굳게 확신시켜야 한다.

끝까지 혁명의 기치를 고수하고 싸워 떳떳한 혁명가로서 사령관동지앞에 나서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나는 이곳에서 잠시 휴식하기로 하였다.

피곤한 대원들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자리에 척척 드러누웠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나무들이 있었으나 누구 한사람 불을 피울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처럼 모두가 피로할대로 피로해졌던것이다.

나는 도끼를 들고 비청거리며 박영순동무에게로 다가갔다.

박영순동무도 말없이 도끼를 들고 나섰다. 내가 왜 도끼를 들고 나섰는지를 알아차렸던것이다.

우리의 얼굴은 퉁퉁 부었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였다.

우리는 서로 부축하면서 눈무지를 헤치고 나무를 찍어왔고 불을 피워 대원들이 언몸을 녹이도록 하였다.

3면으로 계속

군중속에 들어가 정을 주고 고락을 같이하는 어머니당의 참된 일군이 되자

리상적인 당사업의 주인공으로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낳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아야 합니다.》

현시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얼마전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서 량정훈: 옳은 말이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은 당일군의 본분이며 기본임무라고 하시면서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당사업의 성과가 좌우되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진군속도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기자: 도당위원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정을 주는 당사업으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정신력을 폭발시킨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다고 본다.

부장 민경만: 경험이라고 할만 한것은 없다. 대중속에 들어가 일도 같이하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면서 정을 주어야 심장의 문을 열수 있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을뿐이다.

물론 이전에도 도당위원회가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넣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정과 정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었다. 피눈물에 잠긴 온 나라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일으켜세워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일군들에게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사무실이 아니라 화선에서, 정으로 이어지게!

바로 이것이였다. 도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에 구현해나가는것을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선차적인 고리로 틀어쥐였다.

부부장 리성철: 정으로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의 문을 열어 올해에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전투들을 제철에 질적으로 해제낀것이 대표적실례이다.

도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이후 미루벌의 농촌분조들에서 정치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모내기준비때에도 일군들이 군중의 마음속깊이 들어가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촌분조들에 내려간 도, 시, 군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과 친혈육의 정을 맺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과장 백승욱: 직접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겠다. 가정에서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준비해가지고 장풍군 국화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장의 집에 들어간 도당책임일군은 가정살림형편이며 분조농사에서 걸린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책임일군의 인정미에 끌려 녀성분조장은 부모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생활상문제며 부림소가 부족하여 분조농사에서 겪는 고충을 다 터놓았다. 다음날에도 책임일군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당정책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설해주고 귀속말도 들어주는가 하면 부림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워주는 등 후더운 정을 부어주었다.

혈육의 정을 안고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니 그들은 난관을 박차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신계군에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5월말까지 끝내는 전례없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비약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과장 김광명: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는 혈맥이 되여야 하는것이 바로 당조직들이고 참된 삶의 밑거름이 되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당일군들이다.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도당위원회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꽉 채워주고 당과 대중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지게 하는데서 적으나마 성과를 거두었다.

부부장 리성철: 며칠전 황북청년제염소의 부모없는 청년들의 결혼식이 진행되였다. 도당위원회와 도급기관 일군들의 성의가 깃든 결혼상과 살림살이도구가 그쯘히 갖추어진 새 집까지 받아안은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렸다.

과장 한승철: 사리원공업대학의 쌍둥이제대군인학생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것도 좋은 실례이다. 도당책임일군은 반일애국렬사의 손자들인 기계공학부 4학년 김경일, 김영일학생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보살펴주었으며 그들이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고 당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기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도당책임일군의 인정미에 감동된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편지에서 참된 어머니당의 일군들이 있어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그대로 전해지고 자기들의 복된 삶이 활짝 꽃펴난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기자: 도당위원회가 현시기 사람과의 사업에서 내세우는 목표는 무엇인가.

부장 민경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중의 밝은 표정과 당의 의도가 구현된 창조물들, 구내길, 포전길에서 당일군들의 숨은 노력과 진정을 읽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로 리상적인 당사업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모두가 리상적인 당사업의 주인공이 되자, 이것이 도당위원회가 내세운 목표이다.

어디에 가서든지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려 정과 진심을 나누면서 그들이 당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깨닫고 그 관철에 발벗고나서게 하는것을 생활화, 습관화할 때 우리 당일군들 누구나 리상적인 당사업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것이다.

부부장 리광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곧 과학이고 진리이다. 도당위원회는 당일군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학습을 통하여 당일군들의 혁명륜리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뼈에 새기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정과 정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모두가 리상적인 당사업의 주인공들로 준비하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김향란

당일군의 륜리

◇온 나라에 당과 혁명,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고상한 륜리가 차넘치고있다.

동림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한없이 숭고한 풍모는 우리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그 빛나는 귀감을 따라배워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소행이 수없이 꽃펴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식료공장의 한 당세포비서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4명의 혁명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되였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한 한 당초급일군의 소행으로서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고상한 륜리의 표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과 혁명,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을줄 아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고상한 륜리로 되고있다.

◇당일군들은 고상한 륜리의 체현자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과는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고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례절있게 하여야 하며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것을 생활륜리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륜리는 사람이 사회적관계에서 도덕상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총체이다. 사람의 인간됨됨은 중요하게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다.

당일군들은 그 누구보다도 참다운 인간륜리의 체현자가 되여야 한다. 정에 살고 믿음에 살고 의리에 사는것이 바로 인간이다. 당일군들은 투철한 신념과 혁명적인 사상, 원대한 뜻을 지녀야 할뿐아니라 뜨거운 정과 믿음, 고지식하고 겸손한 품성, 고상한 도덕의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당일군의 인간됨됨이 있고 참된 륜리가 있다.

당일군들의 말과 행동이 군중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인민들은 당일군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우리 당의 목소리, 어머니당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

그런것만큼 당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집단과 동지를 위한 무한한 헌신성을 혁명륜리로 간직하여야 하며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따뜻한 정과 의리로 대하고 그들과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것을 어길수 없는 생활륜리로 지켜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고상한 륜리를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공장이나 농촌, 탄광이나 광산 등 그 어디에 가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고 당정책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할줄 알아야 하며 들끓는 전투현장에 뛰여들어 대중과 함께 땀도 흘리며 그들을 불러일으키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언제나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뿐아니라 고지식하고 겸손하며 청렴결백하게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혁명륜리로 여기고 이것이 자신들의 사업과 생활에 확고히 자리잡게 해야 한다.

당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사고와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사색하고 탐구하면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충복, 참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사소한 현상과도 강도높은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당과 혁명,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고지식하고 겸손하게, 청렴결백하게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마땅한 혁명륜리로 간직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얻는다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문제가 있다. 대오의 기관차역할을 수행해야 할 일군들과의 사업이다.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이 이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좋은 점은 긍정감화교양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긍정감화교양은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입니다.》

몇달전 시안의 당, 행정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였다. 회의는 종전과는 달리 경험토론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사연이 있었다. 회의가 있기 얼마전의 일이였다.

회의준비정형에 대하여 알아보던 시당책임비서 오용건동무가 뜻밖에 이런 안을 제기하였다.

《이번 회의에 일군들의 경험토론도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 잘하는 일군들을 내세우는 측면에서도 좋고 다른 일군들을 각성시키는 측면에서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상리당비서 리기벽동무가 첫 토론을 하였다.

농장원출근률에서나 영농실적에서 뒤떨어진 단위, 이것이 이전시기 원상리에 대한 일군들의 표상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당면한 영농과제를 앞당겨 수행, 한달동안에 1 000㎡의 남새온실을 건설하고 시작인 보여주기사업 진행.

리기벽동무가 리당비서로 임명된지는 두달, 이 기간에 그는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꾸준한 교양사업과 치밀한 조직사업,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대중을 이끌어 농장을 앞선 단위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였던것이다.

그만이 아니였다. 다른 단위 일군의 토론도 참가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회의의 실효는 컸다. 성과에 만족을 느끼던 일군들도, 조건타발을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던 일군들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였다.

시당위원회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일군들을 보다 훌륭하게 키우고 내세워주는데도 힘을 넣었다.

순천은하피복공장 초급당비서 홍금숙동무와의 사업에 품을 들인 사실을 놓고보자.

그는 일욕심이 많고 사업에서 원칙성이 강한 일군이였다. 공장에 온 몇년사이에 대중을 발동하여 공장합숙을 개건하고 3층짜리 청사를 일떠세웠다. 이러한 성과들에는 홍금숙동무의 왕성한 사업의욕과 불같은 정열이 놓여있었다. 시당책임일군은 그의 장점을 적극 살려주면서 그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종업원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었다. 때없이 찾아와 그의 사업정형을 알아보고 편향을 바로잡아주었다. 부모잃은 종업원을 따뜻이 돌봐준것을 비롯하여 사람과의 사업에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인 소행이 발휘되였을 때에는 응당하게 평가해주기도 하면서 어머니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그 나날에 그는 종업원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정답게 불리우는 일군으로 성장하였다.

오늘 이곳 종업원들은 기쁜 일이 생겨도, 애로되는 문제가 있어도 초급당비서부터 찾군 한다.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진짜배기어머니당일군이 되였던것이다. 이 과정에 그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어느 한 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이것은 시당일군들은 물론 아래단위 일군들에게도 귀중한 경험을 주었다.

일군들 누구나가 발동되고 대중이 따라섰다. 그만큼 성과도 늘어나게 되였다.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이런 결론을 찾게 된다.

일군들과의 사업이자 군중과의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얻는셈이다.

한 영 철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 모란봉승강기운영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참다운 어머니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책임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도시경영부문의 사업소들중에서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단위가 있다. 모란봉승강기운영사업소이다.

사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3층으로 된 건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몇해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랑많은 이 단위에는 어제날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을 안고있는 종업원들이 많다. 그 소중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오래동안 승강기운전공으로 일해오는 주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두 자식의 어머니인 그는 한때 자기 직업에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부문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그에게 아픈 매를 든 일군이 있었다. 새로 온 초급당비서 김명선동무였다.

《동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누구보다도 동무와 같은 운전공들이 남편이 지켜섰던 기대를 지키고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나가야 하지 않겠소.》

진정에 넘친 초급당일군의 말은 주동무의 가슴을 찌릿하게 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초급당일군은 주동무의 사업과 생활에 더욱 관심을 돌리였다.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그의 살림형편을 자주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었다. 때로는 주동무 자식의 학부형이 되기도 하였다. 군대에 나간 아들에게 편지도 써보내여 집걱정을 하지 않고 군사복무를 잘하도록 고무해주기도 하였다.

그 뜨거운 진정이 주동무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그는 점차 자기 맡은 일에서 성수를 내기 시작했고 창조의 보람을 느끼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게 되였다.

초급당일군은 그후에도 자식의 성장을 두고 마음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당조직의 보살핌속에 그는 그후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작업반장으로까지 자라나게 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하자면 끝이 없다.

1작업반 운전공 박선화, 2작업반 수리공 최경룡, 5작업반 수리공 정현철동무들을 비롯하여 당조직의 보살핌속에서 새 모습으로 태여난 종업원들은 많다.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어머니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초급당일군들의 모습을 종업원들은 잊지 못한다.

그 진정에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배인 손형준, 부원 김영란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사업소에서 내세운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들을 하나하나 수행하게 되였다.

사업소에서는 후방토대를 그쯘히 갖추기 위한 사업과 설비보수 및 정상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처럼 당일군들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진정을 바치며 헌신해나갈 때 혁신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된다는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격식없는 현장정치사업=

위훈창조로 들끓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최고재판소돌격대 함경북도재판소중대의 전투장에 어느덧 쉴참이 왔다.

중대정치일군 최창범동무가 돌격대원들과 마주앉아 화선식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간다.

현시기 제시되는 당정책들을 알려주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금 해설해주면서 돌격대원들을 맡겨진 전투과제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일군의 열정넘친 모습.

윤영호, 김성호, 채명석동무들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오늘계획도 넘쳐 수행하여 세포등판개척자의 영예를 계속 떨쳐갈 결의가 한껏 어려있다.

어느덧 중대장 서승혁동무의 작업시작구령이 또다시 울리고 돌격대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목재가공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간다. 중대일군들의 남다른 이신작칙과 세차게 타오르는 집단적혁신의 불길, 드높은 경쟁열의속에 작업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부쩍부쩍 오른다.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현장정치사업을 일상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진행해나가니 전투장에는 언제나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일

2면에서 계속

나는 사령관동지의 사상을 담아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이곳 후방공작소부대에서 가지고있던 등사기로 찍어내였다.

대원들에게 이 글을 한장씩 나누어준 후 나와 박영순동무는 불무지가에 모여앉은 대원들에게 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옵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38년 11월은 1군에서 활동하고있던 내가 남패자에 도착한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전령병의 전달을 받고 사령부천막으로 찾아갔을 때 그이께서는 나의 손을 힘껏 잡아주시며 나의 건강상태와 학습정형 그리고 사업정형을 자세히 물으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들은 최후발악을 다하여 우리의 혁명력량을 말살하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적들과의 투쟁을 순간도 멈출수 없다.

지금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중국인민들이 일제의 학정하에서 광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우리는 적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놈들에게 큰 타격과 혼란을 줄데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여 더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자면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어떠한 역경에서도 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믿고 원쑤와 싸워야 한다. …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나를 거듭 고무해주시였다.

나는 이날처럼 자신의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무한한 기쁨을 느껴본적은 없었다는것을 대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나는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우리가 비록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곳은 모르고있으나 그이께서는 적들이 발악할수록 그에 대처하여 반드시 적들에게 거대한 타격을 주면서 혁명승리의 날을 촉진시키고계시리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나의 이야기에 뒤이어 이번에는 박영순동무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동만에서 싸워온 그는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덕성 그리고 적들까지 《승천입지하고 동성서격, 둔갑축지를 마음대로 한다.》고 비명을 지르게 한 탁월한 전략전술에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비록 극도로 굶주리고 지치기는 하였으나 이야기를 듣고있는 과정에 대원들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떠올랐다.

《사령관동지께서 어디에 계신지 정말 모르겠소?》

이처럼 안타깝게 물어보는것은 이때까지 불만을 털어놓고있던 위만군출신의 병사였다.

나는 그에게 자신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타일러주었다.

그이께서는 투쟁의 길에 서계시며 우리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그이를 만나뵈올수가 있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있던 한 대원은 불쑥 일어나 웨쳤다.

《우리도 김사령처럼 싸웁시다. 나는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실할것을 맹세하오.》

그의 뒤를 이어 모든 대원들이 차례로 일어나 결의를 다지였다.

이렇게 아무런 격식도 없이 시작된 회의에서 우리는 사령관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일시적위기만 모면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적들의 약한 고리를 찾아 적을 대담하게 침으로써 도리여 적들에게 혼란을 주어야 한다는것을 굳게 결의하고 목재소습격전투를 계획하였다.

굶주리고 지친 대원들과 함께 전투를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계획한대로 전투를 지휘하였다.

앉아서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워하던 대원들도 모두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적지 않은 왜놈수비대들과 위만군을 소탕하고 6마리의 소를 로획하였다.

한달, 두달, 수백수천리의 밀림속을 이처럼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마다 대원들은 우리가 나누어준 종이를 꺼내여 다시 읽어보군 하였다.

벌써 종이는 손에 닳아서 군데군데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로 어깨를 부축한 대원들이 그 글을 읽고나서는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고 《적기가》를 소리높이 부르며 전진하는것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눈을 감을지언정 그 누구도 대오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당원들은 대원들의 앞장에 서서 생눈길을 헤쳐주었으며 전투시에는 항상 제일 위험한 장소에서 싸웠다.

그들은 먹을것이 생기면 먼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오랜 대원이며 취사원인 공동무는 취사도구를 혼자서 도맡아지고도 나어린 대원들의 배낭이나 기관총을 그우에 덧놓고 걸었다.

남과 같이 굶주리고 남과 같이 지친데다가 남보다 많은 짐을 지고도 그는 늘 어린 대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을 고무하였다.

하루는 행군도중에 적비행기에 발견되였다. 신입대원들을 안전한 지대에 은페시키느라고 자기를 돌볼새 없던 공동무는 그만 기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우리는 그를 부축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피로움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달려온 대원에게 자기가 넘어지면서 취사도구가 마사지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취사도구가 그대로 있다는것을 안 그는 입가에 웃음을 띠운채 의식을 잃었다.

숙영지까지 우리는 그를 업고갔다. 그곳에서 잠시 의식이 회복된 그는 가쁜숨을 모두어쉬면서 말하였다. 《끝까지 사령관동지를 찾아가시오. 그리고 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옵거든 잊지 말고 이 늙은것도 혁명을 위해서 한몸을 바쳤다고 말씀해주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말이였다.

우리는 그의 추도식에서 기어이 사령관동지를 찾아가 원쑤들을 백배, 천배로 복수할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하였다.

전투와 행군으로 낮과 밤을 이으며 송화강을 건너선 우리는 오직 사령관동지를 하루속히 찾아가자는 일념으로 모든 고통을 참아가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행군을 계속하였다.

갈수록 더 엄혹한 추위와 기아 그리고 놈들의 추격이 우리를 위협하였지만 우리는 사령관동지께서 지펴주신 혁명의 불길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께서 가리키신 투쟁의 길, 승리의 길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였다.

1940년 6월 중순경 150여일간의 간고한 행군끝에 우리는 안도땅에서 사령관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얼마나 바라고 애타게 그리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신가.

《사령관동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순간 나는 너무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고는 다음말을 잇지 못하였다.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감격에 목이 메여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나를 힘껏 포옹해주시였다.

《서철동무, 수고했소.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우리는 그동안 소식을 몰라 몹시 기다렸소.》

이렇게 말씀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대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몇번이나 거듭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그이를 만나뵙는 순간 우리는 천리행군길에서 겪어온 말 못할 고난도, 일신을 엄습하던 그 모진 피로도 씻은듯 가셔졌고 마음은 날개라도 돋친듯 가볍기만 하였다.

《동지들! 원쑤들은 더욱 미쳐날뛰지만 놈들이 패망할 날은 더욱 가까와오고있소. 이제부터 우리는 멀지 않아 닥쳐올 혁명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작전에로 넘어가야 하겠소. 우리 같이 한번 본때있게 원쑤들과 싸워봅시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고 신념에 찬 말씀에서 미래의 승리를 환히 내다보았다.

수령님에 대하여 품어온 우리들의 흠모심과 확신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례없이 간고한 싸움속에서 여전히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작성하시고 혁명을 새로운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였다.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 항상 충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이렇게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몇번이고 다짐하였다.

벼단운반을 열흘동안에 끝낸 비결

봉산군 묘송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힘있게 떨쳐나선 봉산군 묘송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높이 세운 낟알털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비결은 벼단운반조직을 잘 짜고들어 열흘동안에 끝낸데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어느날 작업반장은 벼단운반문제를 놓고 방도를 찾기 위하여 사색을 거듭하였다.

여기에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사실 작업반에서는 벼가을을 제기일에 끝낸 결과 낟알털기를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이 성과를 공고히 하자면 무엇보다먼저 벼단운반을 열흘동안에 끝내야 하였다.

방도를 찾기 위한 초급일군협의회를 열었다. 집체적토의끝에 초급일군들은 벼단운반을 열흘동안에 끝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았다. 그것은 벼단운반에서 로력조직을 잘하는 것과 함께 운반수단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이였다.

이로부터 작업반에서는 뜨락또르와 함께 부림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로 하였다.

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시한것은 부림소영양관리를 잘하도록 한것이다.

작업반에는 10여마리의 부림소가 있다. 초급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부림소의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가 벼단운반을 다그치고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해설해주면서 모두가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먼저 부림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영양관리를 관리공들에게만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부림소의 리용률이 높아지는데 맞게 영양관리에 모든 농장원들이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결과 여러가지 영양가높은 먹이가 마련되였다. 부림소관리공들은 아침과 저녁에는 물론 점심시간에도 영양가높은 먹이를 충분히 먹이였다. 부림소영양관리가 잘되는것만큼 벼단운반실적이 올랐다.

다음으로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잘한것은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벼단을 실을수 있게 달구지를 개조한것이다. 농장원들은 달구지를 개조하여 적재능력을 높이였다.

이렇게 하니 지난 시기보다 벼단을 훨씬 더 많이 실을수 있었다.

부림소의 영양관리가 잘되고 달구지의 적재능력이 높아지니 벼단운반이 문제로 되지 않았다. 결과 작업반에서는 계획한대로 열흘동안에 벼단운반을 완전히 끝내게 되였다.

지금 작업반에서는 그 기세로 낟알털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김 강 철

변함없는 애국충정으로 인생길을 수놓아온 참된 인간

선천군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좋은 인민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 선천군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는 영웅적소행이나 위훈의 주인공은 아니다.

한생을 도로관리원으로 일해오는 그는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한 녀성이다. 그러한 그의 삶이 온 나라 인민을 격동시키고있다.

과연 무엇으로 하여 이름없는 한 평범한 녀성의 삶이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울리며 자기들이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게 하는것인가.

한생의 재부, 가장 행복한 삶

후대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재부를 가지고있는 사람은 아마도 행복한 사람일것이다. 강동명동무도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하다면 그가 한생의 긍지로 간직하고 사는 재부는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당원증을 품에 안고 성스러운 당기앞에서 엄숙히 맹세다지는 20살의 꽃나이처녀가 있었다. 강동명동무였다.

일생을 어머니당과 운명을 함께 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는 그의 머리속에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는 일찍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 유년시절에 대한 류다른 추억이라면 포성이 쿵쿵 울리는 깊은 밤 엄마를 찾으며 슬피 우는 그를 화약내풍기는 가슴에 안고 여러날을 걸어온 인민군대아저씨들이 그와 헤여지며 꼭 엄마를 찾게 될거라고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던것이 전부였다.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다. 어머니는 곁에 없었으나 그는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다.

전후의 페허속에서도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우리 말, 우리 글을 익히며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희망에 따라 삭주군의 어느 한 공장에서 사회의 첫발을 내짚었다.

그 시절 천리마를 타고 나래쳐오른 조국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령마루에로 힘차게 내달리고있었다. 그는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 몰랐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진하게 흐르는 일터는 그대로 그의 생활과 기쁨의 전부였다. 밤낮을 가림없이 일하는 그에게 혁명전적지답사권과 휴양권이 남먼저 차례졌고 해마다 혁신자의 긍지 드높이 평양견학의 길에도 빠짐없이 올랐다.

어린시절 헤여지지 않겠다고 울며 매달리는 그에게 언제나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하던 인민군대아저씨들의 이야기를 굳이 믿고있은 강동명동무에게 있어서 혁신자가 되는것은 곧 어머니를 만나는 길이였던것이다.

…

그런 그에게 꿈같은 영광이 차례졌다.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칭호가 안겨졌던것이다.

《어머니당의 참된 딸이 되길 바랍니다.》

당원증을 수여하며 군당책임일군이 한 이 말이 그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어머니!)

그날 강동명동무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어린시절 언제나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온다고 한 그들의 말이 옳았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다.

나를 따뜻이 품에 안아 먹여주고 키워주신 어머니,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나를 보살펴 엄하게 매도 들고 바른길로 이끌어주실 어머니!

그렇다. 나의 어머니는 조선로동당이다!》

그는 마음이 든든했다. 매일 아침 발걸음도 씩씩하게 일터로 향했고 래일에 대한 보다 큰 희망과 꿈을 안고 보람찬 처녀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로동자합숙에도 들리시여 합숙생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그날 밤 강동명동무는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12호실의 문을 남먼저 열고 들어섰다.

어버이수령님의 숨결과 체취가 그대로 남아있는듯싶은 호실의 방바닥을 어루쓸고 또 쓰는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그날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12호실로 방을 옮겼다.

그에게 있어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그 방은 더이상 합숙방이 아니였다.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였고 일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였다. 하루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설 때마다 《오, 우리 동명이가 돌아왔구나. 오늘도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했느냐?》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고 따스한 이부자리에서 행복의 꿈나라로 갈 때면 자애로운 그 손길이 온밤 자기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그 꿈을 소중히 지켜주는것만 같았다.

어려서부터 자기 집이라는것을 모르고 자란 그에게 있어서 공장합숙의 12호실은 친아버지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행복한 집이였다.

그후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따라 선천군으로 이사를 온 뒤에도 그는 남들이 친정집소리를 할 때마다,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질 때마다 늘 옛 일터의 12호실을 그려보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이른새벽이였다.

우편통신원으로 일하던 강동명동무는 그날도 출판물보급준비를 위해 남먼저 일터로 향하였다. 출근하여 당보를 펼쳐들었던 그는 그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져버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평안북도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실렸던것이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몰아치는 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소식이 실린 신문을 가슴에 품고 온 하루를 걷고걸으면서도 그는 추운줄도 힘든줄도 몰랐다. 마지막신문까지 배포하고난 늦은저녁 그는 길가에 나섰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린듯싶은 그 길우에 서있노라니 사무쳐오는 절절한 그리움과 격정으로 하여 목이 꽉 메여올랐다.

그러는 그에게 눈앞의 도로가 새삼스럽게 안겨왔다. 하루에도 수십번이나 오가던 눈에 익은 길이였으나 좋지 못한 도로의 상태가 그날따라 그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할 때 그는 선뜻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그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 생각으로 눈굽이 젖어올랐고 자기 군의 험한 도로생각으로 가슴이 저려왔다.

(어버이수령님앞에 비단필을 깔아드리지는 못한다 해도 길이야 왜 정히 닦아드리지 못하겠는가.)

마침내 그는 도로관리에 한생을 바칠것을 결심했다.

그의 결심을 듣고난 남편은 오랜 침묵끝에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거요. 그러나 끝까지 갈길이면 난 반대없소.》

강동명동무는 그러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수령님 품이 아니라면 일찌기 부모를 잃은 당신이나 저의 오늘이 어떻게 있었겠나요. 우리 수령님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한생의 전부를 바치고싶은것이 제 심정이예요.》

얼마후 선천군 읍의 평양—신의주도로에 매일이다싶이 한 녀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른새벽부터 길을 쓸어가는 그 모습이 30여년세월 변함이 없으리라는것도, 그의 가슴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지도 그때는 미처 다 알수 없었다.

도로관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모든것이 손에 설고 생소했다. 한가정의 뜨락을 꾸리고 거두는것도 품이 드는 일인데 하물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오가는 도로를 관리하는것이 어찌 헐할수 있겠는가.

강동명동무는 힘들 때마다 멀리 평양하늘을 우러르는 했다. 그리고나서 한발자국, 두발자국 평양쪽으로 길을 쓸어가면 가슴이 확 열리고 저도 모르게 새힘이 솟구치군 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실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랄것이 없고 그 길에서는 단 한치의 드팀도 없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강동명동무가 한생토록 간직한 삶의 신조였고 좌우명이였다. 이러한 신념은 3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어느 하루도 그의 가슴속에서 떠나본적이 없었다.

지난해 가을이였다.

뜻밖의 일로 읍지구도로의 한곳이 심하게 파괴되였다. 현장에 가보니 엄청난 공사량이였다. 몇몇 작업반원들은 저녁시간이 다되였고 한두시간에 끝낼 일도 아닌데 래일 하면 어떻겠는가고 이야기했다.

그때 강동명동무는 단호히 말하였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도로관리가 아니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래일이란 있을수 없어요. 밤이 열돌이라도 도로를 복구하자요.》

남먼저 곡괭이를 들고나서는 그의 뒤를 작업반원들이 따라나섰다. 파괴된 도로의 로반을 정리하고 골재를 날라다 쌓기 시작하였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만 골재가 떨어졌다. 이때에도 강동명동무는 남먼저 손수레를 끌고 나섰다. 읍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에 나가 골재를 날라오자는것이였다.

그날 강동명동무와 작업반원들은 도로를 훌륭히 복구하고야말았다. 그러나 총총히 여문 별을 떠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중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로 그 길로, 강동명동무를 비롯한 선천군 도로관리원들이 밤새워 복구한 도로로 다녀가시였던것이다.

그는 행복했다.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심장이 세차게 높뛰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그리며 언제나 그러하였던것처럼 강동명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도로우에 정히 섰다.

잔돌 하나없이 일매지게 뻗어나간 도로, 싱그러운 풀냄새가 금시 풍겨올듯싶은 푸르싱싱한 잔디밭…

눈에 익은 모습이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길이 평범한 도로로만 안겨오지 않았다.

그것은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12호실로, 친정집으로 향하는 길이였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잇닿아있는 행복한 삶의 뜨락이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리고달리는 그리움의 길이였다.

이렇듯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는 곧 어버이품과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운명의 피줄기라고 여겼기에 강동명동무는 그 길우에 일편단심 충정의 자욱만을 새겨올수 있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것이 있다면 한생 우리 당을 어머니로 믿고 따르며 걸어온 인생길이다. 그 길을 너희들이 부디 떳떳하게 이어가길 바란다.》

오직 자기 당, 자기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며 걸어온 변함없는 인생길, 그것은 강동명동무의 인생의 전부이다.

사람들이여, 물어보자! 억대의 재산에 자기 한생을 담을수 있는가.

영원토록 이어갈 후대들의 삶속에 자기의 떳떳한 한생을 물려줄수 있는 강동명동무야말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참된 삶의 가치, 량심과 헌신

인격은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는다.

인격을 결정하는것은 그 인생이 사회와 집단에 얼마만큼 필요한가, 다시말하여 인생의 가치이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언제인가 작업반에 갓 들어온 한 녀인이 수십년동안 도로관리원으로 일해온 강동명동무의 경력에 놀라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처녀시절에 당원의 영예를 지녔고 얼마든지 편안한 일터에서 일할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여 30여년을 도로관리원으로 일해올수 있었나요?》

그때 강동명동무는 그에게 말해주었다.

《사람이란 각자가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자기 몫이 있는거야. 과학자는 연구성과로, 용해공은 강철증산으로, 농장원은 풍요한 가을로 그리고 우리는 도로를 더 잘 관리하는것으로 나라를 받들지. 더우기 도로야 나라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니.》

강동명동무에게는 인격을 재는 남다른 자막대기가 있었다.

사시장철 비바람속에서, 눈보라속에서, 뙤약볕속에서 도로를 쓸고 또 쓸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맞고보냈던가.

그들속에는 학력을 뽐내는 사람도 있었고 뜨르르한 래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잘나고 미끈한 외모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남다른 직업,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자기를 은근히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과는 학력도, 살아온 경위도, 직위도 비할바가 못되였지만 강동명동무가 그들 못지 않게 자부하고있는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이였다.

그는 자기가 맡은 도로를 언제나 제살붙이처럼 여겼다. 길을 한번 쓸어도 자기 집뜨락을 거두듯 알뜰히 쓸었고 잔디 한포기를 심어도 자기 집터밭을 가꾸듯 정성담아 심었다. 도로가 조금이라도 패이면 제 집 장판에 흠이 난듯 가슴아파하며 밤새워 깨끗이 수리해놓고야말았다.

그 나날속에는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다. 참기 어려운 가슴아픔으로 모대기던 순간도 있었다.

어느해 겨울 강동명동무는 뜻밖에도 자식들이 어머니가 일하는 도로를 피해 학교로 오가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아침일찍 도로관리에 나가는 어머니여서 늘 집문앞에서가 아니라 도로에서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달음박질쳐가던 그들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영문을 묻는 어머니에게 볼부은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학급애들이 어머니를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난 창피스러워 어머니가 일하는 큰길로는 못 다니겠어요.》

오빠의 푸념에 녀동생도 어머니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졸랐다.

《왜 엄마는 도로에서 계속 청소만 하나? 이젠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

강동명동무는 그러는 자식들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아직 철없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었으랴.

그날 밤 눈은 왜 그렇게 많이도 내리는지…

강동명동무는 깊은 밤 아직도 엄마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풀리지 않은듯 코김까지 힝힝 내불며 곯아떨어진 아들애의 머리맡에 앉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자기 일을 사랑한다는것이 뭔지 알게 될 때면 너희들도 어머니마음을 리해할거다. 어머닌 도로를 떠나 못살거던.》

그리고는 눈가래를 찾아들고 조용히 문밖을 나섰다.

몇달후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누이가 책가방을 멘채로 어머니에게 와락 안겨들며 큰소리로 웨쳤다.

《어머니가 속보판에 났어요. 사진이랑 크게. 어머니는 군의 자랑이고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혁신자래요.》

《엄마! 오늘 공부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엄마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동무들은 날 막 부러워했다.》

다음날 큰길을 따라 활개치며 등교길에 오른 자식들을 기쁨속에 바라보는 강동명동무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혀 반짝이였다.

나라가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였다. 먹을것은 물론 땔것조차 부족하던 그때 함께 일하던 작업반원들이 하나둘 정든 일터를 떠나갔다.

어느날 그는 길가에서 어제날 함께 일하던 작업반동무를 만나게 되였다.

서로 반갑게 회포를 나누는 속에 강동명동무의 차림새를 눈여겨보던 그 동무가 이렇게 말했다.

《이젠 그 일을 그만하는게 어때? 강동문 눈썰미가 있고 아는것두 많으니 나랑 같이 움직이면 애들 배곯는 일은 없을거야.》

그러면서 그는 손수레에 실은 커다란 짐을 눈으로 가리켜보이였다. 묻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짐인지 짐작이 갔다.

강동명동무는 깊어지는 생각을 어쩔수 없었다. 그가 하던 말이 귀전에서 떠날줄 몰랐고 썰렁한 방안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릴 자식들이 생각났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어스름이 깃든 도로를 따라 묵묵히 퇴근길에 오른 그에게로 한 사람이 다가왔다. 사업소 당일군이였다.

《강동무, 요즘 몹시 힘들어하는것 같은데 그럴수록 대중이 당세포비서인 동무의 얼굴을 쳐다본다는것을 잊지 말자구.》

그가 일군의 말을 되새겨보며 깊은 상념속에 잠겨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자식들이 달려나오며 말했다. 방금전에 비서아저씨가 왔다갔는데 밥가마뚜껑도 열어보고 저렇게 쌀자루까지 놓고 갔다고.

그것을 보는 순간 강동명동무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믿고 도우면서 끝까지 한길을 가자고 이야기하던 당일군의 당부가 다시금 귀전에 울려왔다. 그는 순간이나마 동요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자기가 맡은 도로에 허기져 쓰러질 자리는 있을지언정 한치도 비워둘 자리는 정녕 없음을 새삼스럽게 자각한 그는 다음날 작업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일터를 지키자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최전연의 전선길이여서 총을 들고 지키겠나요, 수천척 지하의 막장길이여서 동발나무로 지키겠나요. 량심밖에 없지요. 량심을 지키는 길이 곧 일터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강동명동무는 이처럼 량심을 바쳐 자기 일터를 사랑하였다.

어느해 장마철이였다. 작업반원들과 함께 맡은 구간의 도로를 돌아보던 강동명동무는 려관앞 길가에 물이 넘쳐나는것을 발견하였다. 수통이 막힌것이였다. 더 다른 생각을 할새도 없이 수통으로 몸을 들이미는 그를 작업반원들이 만류해나섰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강동명동무는 주저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누구든 들어가야 물길을 열지 않겠나요.》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수통으로 들어간 강동명동무는 장마비로 꽉 메워진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점차 숨이 가빠나고 기력이 진해갔다. 죽이나마 남편과 아이들의 밥그릇에 다 퍼주고 맹물 한사발로 아침을 에우고 나온 그였던것이다. 그 순간 갑자기 물목이 터졌다. 그는 세찬 물살에 실려 수통밖으로 뿌려졌다.

그날 큰일날번 했다고 이야기하는 작업반원들에게 강동명동무는 되려 이렇게 말하였다.

《장마비가 우리 일손을 덜어주었군요. 보세요. 얼마나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마치 세수한것 같아요. 난 이렇게 깨끗한 도로를 볼 때가 제일 기뻐요.》

팔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토록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작업반원들은 생각했다.

저렇듯 뜨거운 헌신이 곧 일터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자기 일터를 성실히 지켜가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 감동되여 작업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작업반성원들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앉던 날 강동명동무는 그들을 얼싸안으며 기쁨에 넘쳐 말했다.

《장군님만 계시면 고난과 시련이 열백번 온대도 무서울것이 없어요. 우리모두 힘을 합쳐 이 도로를 끝까지 지켜가자요.》

그후 어버이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의 곁을 떠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가 전해졌다.

강동명동무는 그만 도로에 쓰러지고말았다.

친부모도 줄수 없었던 사랑과 정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자애로운 품, 나라를 위해 크게 해놓은 일도 없는 자기를 여러 국가적인 대회들에 불러주시며 인생의 모든 영광을 다 안겨주신 어버이를 잃은 슬픔에 그는 몸부림치며 흐느껴울었다.

그러나 크나큰 상실의 아픔으로 얼어붙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어버이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강동명동무는 힘과 용기를 가다듬었다. 그는 작업반원들과 함께 도로에 나섰다.

누군가가 선창을 뗀 노래소리에 모두가 목소리를 합치였다.

먼동이 터오는 이른새벽에
간절한 소원안고 이 길을 쓰네
수령님 지나가실 넓은 길우에
이 마음을 비단필로 펴놓아가네
…

작업반성원들모두가 분발해나섰다. 어버이장군님께 못다한 충정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바쳐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며 도로관리를 더욱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갔다.

그 나날 강동명동무는 언제나 작업반원들의 맨 앞장에 서있었으며 친언니,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었다. 몸이 불편하여 자리에 누운 작업반원의 머리맡에 날이 밝도록 앉아있던 사람도 그였고 자연재해로 집재산을 다 잃은 작업반원에게 집에 건사했던 가정용품과 얼마 남지 않은 식량까지 통채로 안겨준 사람도 바로 강동명동무였다.

이렇게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선천군 읍지구의 도로는 몰라보게 변모되여갔다. 그 나날 나어린 소년단원으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선천군 읍에 사는 사람들모두가 강동명동무를 알게 되였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였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동명동무의 소행을 료해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하여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령도자의 축복속에, 사회와 집단의 존경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강동명동무, 그를 보며 누구나 생각한다.

참된 삶의 가치는 깨끗한 량심과 불같은 헌신으로 평가되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강동명동무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03호 주체103(2014)년 10월 28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제남탄광 2갱

3대혁명붉은기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 10갱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 청년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11월중 지자기현상

11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2일(7시-9시), 8일(1시-3시), 12일(2시-4시), 16일(14시-16시), 24일(1시-3시), 26일(2시-4시), 30일(20시-22시).

청진지방

5일(22시-24시), 9일(1시-3시), 13일(11시-13시), 16일(20시-22시), 22일(22시-24시), 24일(17시-19시), 28일(10시-12시), 30일(19시-21시).

사고와 실천의 기준—인민의 리익

회령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회령시당위원회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령시에서 새로 공원을 건설할 때의 일이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부족하고 어려운것이 많았지만 공원건설에 심혈을 기울이였다.

유희기재는 어떤것을 놓아야 하겠는가. 공원구획은 어떻게 해야 인민들의 리용에 더 편리하겠는가. 정문의 형식과 색갈은 어떤것으로 해야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그 과정에 좋은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품은 좀 들더라도 공원에 로인용운동기재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을 하도록 체육기자재들을 갖추어주자는것, 바닥처리도 잘하여 아이들의 미감에도 맞고 리용에도 편리하게 하자는것…

그리하여 그 안들은 설계초안에 반영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공원건설문제를 놓고 열린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시당책임일군이 공원의 위치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그 위치로 말하면 일군들이 며칠동안을 시안의 여러곳을 다니며 찾은 곳으로서 주민들의 리용에 편리한 곳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런데도 책임일군은 더 좋은 위치를 찾아보자고 하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일군들은 책임일군이 왜 굳이 다른 곳을 정하자고 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 의문은 책임일군이 성천동지구에 부지를 잡았을 때에야 비로소 풀리게 되였다.

그 자리는 건설을 하기에 불리해도 주민들이 휴식하기에는 명당자리라고 할수 있었다.

이렇게 되여 회령공원건설위치는 옮겨지게 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착공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은 착화탄생산기지에도 비껴있다.

시에서 동명동지구에 있던 시연료사업소의 낡은 건물을 대담하게 허물고 착화탄생산기지를 건설하였다.

난관은 좀 있었지만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회령탄광기계공장 일군들의 이악한 노력으로 새형의 설비가 만들어지고 착화탄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공급되자 주민들의 반영은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발열량이 좀더 높았으면 좋겠어.》

《저열탄이니 별수 있나. 그런대로 써야지.》

시당책임일군이 이른새벽 시안의 여러곳을 돌아볼 때 어느 한 마을옆을 지나면서 들은 말이였다. 착화탄의 불을 살리며 하던 녀인들의 말이 그의 머리속에서 좀처럼 사라질줄 몰랐다. 자책되는바가 있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우리 일군들이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높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상요구에 맞게 일감을 끊임없이 찾아쥐고 일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며칠후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화학일용품공장 기술준비실장 로정옥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집단이 꾸려지고 새로운 연료첨가제연구가 시작되였다.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의 진심어린 방조와 연구사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새로운 연료첨가제연구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게 되였다.

그후 착화탄을 받은 주민들의 평은 좋았다.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 또 하나의 좋은 일을 한 일군들에게 주는 군중의 평가였다.

이런 실례를 다 들자면 끝이 없다.

최근에만도 시에서는 기초식품공장, 화학일용품공장, 식료가공공장, 백살구가공공장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버섯공장과 박막온실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 모든 성과는 사고와 실천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두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이 안아온 결실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메아리치는 충정과 보답의 맹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높은 긍지감과 열의를 가지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새살림을 폈다. 온 나라 인민들의 경탄과 부러움의 눈길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로 쏠리고 축하의 인사가 축복받은 주인공들에게로 그칠새없이 날아오고있다.

날에날마다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는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가.

사랑의 보금자리에 꽃피는 행복한 생활

이 밤이 빨리 지샜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신 그날부터 온 은정과학지구는 명절처럼 들썩이였다. 새집들이경사를 하루 앞둔 날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일떠선 식당에서 첫 결혼식까지 있어 모두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선 식당앞은 첫 결혼식의 주인공들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지나가던 길손들까지 걸음을 멈추다보니 여간 붐비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준공식과 더불어 식당이 곧 개업한다는 소식에 은정과학지구의 많은 가정들에서 저저마다 자식들의 결혼식을 여기에서 하겠다고 신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선참으로 축복을 받게 된 청춘남녀는 지능정보연구소 연구사 박지철동무와 공업정보연구소 과학서기 최순금동무였다.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일떠선 과학자주택지구의 식당이니만큼 첫 주인공들은 마땅히 청년과학자들이여야 한다는것이 모두의 일치한 의견이였던것이다.

신랑의 아버지는 물리학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사업하는 박성일동무이고 어머니는 미생물학연구소에서 일한다고 한다.

신부의 아버지 최용호동무역시 교수 박사로서 기계공학연구소 소장으로 사업하고 어머니도 한연구소에서 일하였다니 두 과학자가정이 또 하나의 새 과학자가정을 낳은셈이였다.

드디여 신랑신부가 도착하고 모두의 축복속에 뜻깊은 결혼식이 진행되였다. 좋은 날, 좋은 때에 새 과학자가정이 태여난것도 좋지만 사돈을 맺은 두 집이 경쟁이라도 하듯 다섯칸짜리 새집들이경사의 주인공들이 되였다니 그것 또한 좋은 일이였다.

아쉬운것은 최용호소장이 맏딸의 결혼식에 참가하지 못한것이다. 신부의 손전화에는 이런 통보문이 날아왔다.

《미안하다. 우리 당에서 바라는 연구성과소식으로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하련다.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과학으로 받드는 탐구의 길에서 청춘의 사랑을 맺고 꽃피워온 부모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를 이어 과학으로 받들어갈 새 과학자가정의 앞길을,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련이어 태여날 한쌍의 꽃들을 축복하며 은정과학지구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일생 잊지 못할 첫날밤을 맞은 신랑신부도, 청년과학자아빠트에서 마지막밤을 보내는 과학자부부도 아니 과학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였으니 모두의 생각은 하나같았다.

—이 밤이 빨리 지샜으면…

복에 복 또 복

드디여 새집들이날이 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9호동 1현관 2층 1호의 주인들은 과학자부부였다. 세대주는 지구환경정보연구소의 박사 부교수 한철훈동무이고 안주인은 환경공학연구소 실장인 김혜림동무였다.

《벽돌 한장 나른것 없는데…오늘의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부과학자의 집을 나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에 몸을 싣고 찾아간 곳은 10호동 3층이였다.

《자, 주인들이 먼저 들어가야지.》하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목소리가 울리였지만 방안으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눈물부터 앞세우는 1호집의 세대주는 111호제작소 소장 류성은동무였다.

집안을 돌아보는 안해 리명옥녀성과 김형직사범대학에 다니는 딸 류은하의 얼굴에도 눈물절반, 웃음절반이였다.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안주인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주부들이야 부엌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엌은 물론이고 모든것이 다 마음에 듭니다. 16년전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일떠선 청년과학자아빠트의 새 집에 열쇠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살았는데…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새 집의 열쇠를 꽉 쥐고 끝을 잇지 못하는 그의 말에 우리의 눈굽도 뜨거워졌다.

《얼마전엔 우리 국가과학원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지 또 며칠전에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또 새집들이경사에 텔레비죤과 이불, 집기류까지 선물로 받아안았으니 정말 우리 과학자들이 복에 복 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수학연구소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송창호동무만의 심정이랴.

30대 초엽에 공로있는 과학자들과 나란히 다섯칸짜리 새 집에 들었다고 울먹이던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 을지기호동무며 리과대학 화학생물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박성진동무, 수산과학분원 연구사 리수남동무, 수학연구소 연구사인 박사 부교수 량일동무, 아버지원수님께서 주신 새 집이 공부하기도 좋고 방이 여러칸이나 되여 이제는 아버지가 집에서도 조용한 방에서 연구사업을 할수 있게 되여 좋다고 하던 지질학연구소 연구사 김창남동무의 딸인 은정구역 은정고급중학교의 김청휘학생을 비롯하여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감사의 정으로 젖은 한목소리, 행복에 넘친 한모습이였다.

불빛아래 흐르는것은

밤은 왔어도 어둠은 깃들지 못하였다.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줄지어 늘어선 태양전지가로등의 불빛아래 로라스케트타기에 밤가는줄을 모르는 아이들, 삼삼오오 떼를 지어 불야경속을 거니는 사람들…

어디선가 울리는 웃음소리를 따라 우리가 간 곳은 9호동 2현관 4층 2호였다. 지질학연구소 실장인 박사 부교수 오광석동무의 집이였다. 새집들이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평천구역에서 살고있는 딸네며 남포에서 온 녀동생, 처남과 조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 방안은 무척 흥성이고있었다.

너무도 아늑하여 첫날부터 정이 푹 들고 포근한 침대에 드니 잠도 잘 왔다는 안주인인 송명희녀성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가는데 다섯살 났다는 주혁이가 외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아끄는것이였다.

《글쎄 이 손자녀석이 새 집에 오자부터 그냥 술래잡기를 하자고 이 성화가 아닙니까. 집이 넓으니 아까도 애가 숨은걸 한참이나 찾지 못했지요.》

웃음이 터져올랐다.

《우린 일본땅에서 나서자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빠네 새 집에 와보니 어린 우리 형제를 데리고 귀국할 때 조국에 가면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납니다. 좀전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강좌장을 하는 남동생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아니 글쎄 동생도 이번에 대동강반에 새로 일떠선 희한한 새 집을 받았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기계공학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저의 시아버님도 네칸짜리 새 집을 받았습니다. 정말 원수님사랑을 우리 집안이 통채로 받아안은것 같습니다.》

녀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끊어지기 바쁘게 딸이 이어가는 새 집이야기는 끝날것 같지 않았다.

《새 집에 올 때 들으니 우리 원수님께서 입사하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인사와 함께 모두가 만시름을 놓고 연구사업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였다는것이 아닙니까. 이 몸이 열두쪼각이 난다 해도 그 믿음에 보답해야겠는데…》

로박사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젖어있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만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과학기술적문제, 당과 조국이 고대하는 문제를 풀기 전에는 사랑의 금방석에 앉을수 없다며 평양국제비행장으로, 온천탐사지로, 탄전으로, 발전소로, 각지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간 수많은 과학자들도 이 밤 과학자주택지구의 밝은 불빛을 그려보며 사색과 탐구로 지새울것이다.

우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층층 솟아오른 살림집들, 뜨거운 사연깃든 남새밭과 태양열온실이며 위성원, 체육공원…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같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였다.

밝은 불빛아래 넘치는 보답의 열망, 맹세의 열기로 하여 드넓은 과학자주택지구가 통채로 움씰거리는 밤바다마냥 우리의 눈앞에 비껴들었다.

—영원히 조선로동당기발아래에서만 과학연구사업을 하리라!

—주체과학의 힘으로 강성국가를 일떠세워 이 땅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리라!

우리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다시한번 확신하였다.

과학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부강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위대한 힘을!

본사기자 려명희

행복의 종소리 울리는 집

111호제작소 연구사 김승철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딸랑—딸랑—

초인종소리도 정답게 들려오는 5호동 1현관 1층 1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주시였던 집앞에 이른 우리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숭엄한 감정에 뭉클 젖어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모습이 우리앞에 나타났다. 온 나라의 관심속에 진행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대한 새집들이가 텔레비죤방송으로 소개되던 날 화면에서 보았던 김승철동무의 안해 김연옥녀성이였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집안으로 이끌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날의 감동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김연옥녀성의 눈굽에는 뜨거운것이 가득 고여올랐다. 살림집의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이 어리여있다고, 언제나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정을 잊지 않고 남편의 과학연구사업을 힘껏 뒤받침해주겠다고 눈물속에 말하는 과학자의 안해,

가슴속에 솟구치는 뜨거운 격정을 누르며 방안을 돌아보던 우리의 눈길은 부엌에 머물렀다. 손색없이 꾸려진 부엌의 고급찬장들에는 은정어린 경질유리그릇들이 차곡차곡 놓여있었고 베란다에는 겨울철온도보장을 위한 난방설비까지 설치되여있었다.

어찌 그뿐이랴. 침대며 신발장, 책상, 책장, 식탁 등은 은한 색갈의 질좋은 가구들…

어디를 둘러보아도 당의 사랑과 은정이 속속들이 깃들어있는 희한한 새 집이였다. 이런 집에서 생활하게 된 온 가족의 행복과 긍지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딸랑—딸랑—

행복과 기쁨이 끝없는 이 가정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맏딸 효금이의 담임선생이 찾아왔다.

《효금이 아버지, 축하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고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 바쁘게 딸랑, 딸랑 초인종소리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함께 일하는 연구소실장의 안해가 찾아왔다.

《효금이 아버지가 정말 부럽군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에 입사한 효금이 아버진 복에 또 복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부러움과 축복속에 김승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평범한 과학자인 제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새 집에서 살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뚜렷한 보답의 흔적을 남기며 한생을 과학연구성과로 빛내이겠습니다.》

딸랑—딸랑—

이번에는 옆의 호동에서 산다는 아주머니가 찾아오고 또 조금후에는 한현관에 입사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정답게 울리는 초인종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열렬한 어버이사랑속에 복받은 참된 삶을 누리는 우리 과학자들의 모습을 보려면 여기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오라고.

글 본사기자 김경철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수필

끝이 없다

새집들이로 흥성이던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만났던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 과장 한화숙동무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전 요즘 끝이 없다는 말에 대해 계속 생각해봅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끝없다, 영광이 끝없다, 행복이 끝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끝없다 하고 입속으로 외워보는 나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뜨거워졌다.

아마도 그는 잊지 못할 1월을 생각했으리라.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그날 혁명사적관에서 그의 해설을 들어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려, 위대한 장군님을 기다려 수십년세월 변함없이 살아온 간절한 소원도 헤아리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특류영예군인과학자의 안해로 살며 남편의 뒤바라지도 묵묵히 하고 어머니로서 아들을 과학탐구의 길로 떠밀며 당이 맡겨준 혁명사적초소를 한생토록 지켜온 그를 우리 당은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었다.

오늘은 또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은정넘친 선물까지 받아안았으니 정녕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과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있으랴.

생각을 이어가는 나의 귀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만나뵙는 그날 1월의 잊지 못할 하루반이 또다시 생각났다고 하던 국가과학원 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울리는듯싶었다.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옹근 하루반을 꼬박 바치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께서는 하루반만이 아니라 일년내내 과학자들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의 과학중시사상의 위대한 선언과도 같은 그 뜻깊은 말씀 한마디에 그렇듯 무한대한 사랑의 세계가 깃들어있는줄 그날에는 미처 다 헤아릴수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정녕 겨울에도 찾으시고 여름에도 찾으시고 가을에도 찾으시며 거듭거듭 베풀어주신 끊임없는 사랑속에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였다.

어찌 한 과학자가정, 은정과학지구의 과학자들과 그들의 가정만이 받아안는 사랑과 정이라고 할수 있으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알게모르게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이 있다. 그것을 합치고합치면 고마운 우리 당의 끝없는 사랑의 위대한 력사가 될것이다.

사랑속에 바쳐진 어머니의 천만고생을 다 헤아리는 자식이 없고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고 끝없다는 이 말을 우리는 너무도 무심히, 너무도 많이 해오지 않았던가.

《끝없이 내리는 사랑에 변함없이 오르는 충정이 없다면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끝없이 깊어지는 나의 생각을 흔들며 한화숙과장이 하는 말이였다.

그렇다. 복속에서 복을 알아야 한다. 대를 이어 받아안는 끝없는 사랑속에서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릴수록 충정의 마음도 끝없고 보답의 열망도 그렇게 끝없이 불타야 할 우리들이 아닌가.

사랑과 충정의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은 잊을수 없는 하루였다.

본사기자

룡원리역과 배산점역이 개건되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사상에 떠받들려 희한한 선경을 펼친 연풍과학자휴양소의 휴양생들과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룡원리역과 배산점역개건공사가 완공되였다.

준공식이 30일 해당 역들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 종업원들이 준공식들에 참가하였다.

준공식들에서는 한창남 철도성 정치국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룡원리역과 배산점역이 연풍과학자휴양소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국가과학원과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과 인민들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개성이 살아나게 역사를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개건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일념으로 줄기찬 투쟁을 벌려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였다고 말하였다.

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역구내와 철길들을 잘 관리하고 려객봉사사업을 적극 개선하여 우리 당의 은정이 과학자들과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과학자들과 인민들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수송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끼품평회 및 경험토론회 진행

전국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조직들과 학생청소년들의 토끼품평회 및 경험토론회가 30일 대성구역 안학고급중학교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 토끼기르기에서 모범적인 학교들의 학생들과 청년동맹, 소년단지도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토끼품평회에는 각지의 학생청소년들이 과외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키운 새 품종토끼들과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여러종의 토끼들이 출품되였다.

경험토론회에서는 토끼사양관리방법과 수의방역사업의 물질적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 얻은 경험 등 여러 학교의 토끼기르기성과와 토끼기르기지식이 소개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박영기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3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일본정부대표단 귀국

이하라 쥰이찌 외무성 아시아오세안주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정부대표단이 30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인 서대하《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은 대표단의 체류기간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리행을 위해 공화국령내의 모든 일본인에 관한 지금까지의 조사정형을 개괄하여 일본측에 통보하였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분과별책임자들이 일본측과 해당한 실무면담들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험천만한 군사적공모결탁으로 얻을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오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군사적공모결탁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받고있다.

얼마전 워싱톤에서 진행된 46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협의회에서는 미국이 2015년까지 괴뢰들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던것을 또다시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던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와 미 210화력려단을 서울과 한강이북지역에 계속 남겨두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핵위협》을 떠들면서 미일남조선《군사정보공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는 등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모의판도 벌리였다.

괴뢰들이 미국에 애걸하여 조선반도지역의 안보환경과 괴뢰군의 핵심군사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것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영원히 내맡기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위험을 엄중히 몰아오는 천하의 매국역적행위로서 지금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미국과 공모결탁한 괴뢰패당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을 무색케 하는 특대형반민족적범죄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켜 핵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남조선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는 리승만매국도당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고 미국을 등에 업고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밑에 상전에게 괴뢰군통수권을 섬겨바침으로써 발생된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은 그로 하여 60여년간이나 헤아릴수 없는 굴욕과 수치, 불행을 강요당하여왔다.

빼앗긴 존엄과 주권을 되찾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수십년간에 이르는 줄기찬 투쟁에 의해 마침내 미국은 지난 2007년 2월 형식상으로나마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극악한 친미주구 리명박역도는 《시기상조》니, 《잘못된 선택》이니 하면서 미국상전에게 애걸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년까지 연기시키는 추태를 부리였다.

더우기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자기의 선거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또다시 무기한 연기하는 만고역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괴뢰패당은 군사주권을 영구포기하는 대가로 천문학적액수의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를 섬겨바치고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끌어들이며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라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를 다 받아먹었다.

지구상에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지만 현 남조선괴뢰패당과 같이 외세에 빼앗긴 군사주권을 반환받지 않겠다고 막대한 대가까지 섬겨바치는 그런 쓸개빠진 사대매국노, 추악한 반역패당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국권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군권을 영구히 송두리채 빼앗긴 미국의 식민지노복에 불과한 주제에 《국격》이니 뭐니 하면서 《선진국》냄새를 피우며 돌아가는 꼴이야말로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이번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군사주권영구포기선언》으로 락인하고 그에 도장을 찍은 10월 24일을 《국치일》, 《군치일》로 격분에 넘쳐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도발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고 군사적충돌과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의 돌격대로, 핵전쟁하수인으로 나선 괴뢰패당은 《킬체인》이니, 《미싸일방위체계》이니 하는 북침핵전쟁준비에 더욱 열을 올리는 한편 서해열점수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끊임없이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 삐라살포에 매달리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이런 속에서 벌어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무기한 연기놀음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강화하고 남조선을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대조선침략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와 미국에 빌붙어 명줄을 부지하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며 북침전쟁의 불을 기어이 지르려는 괴뢰패당의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미국과 괴뢰들의 침략적인 군사공모결탁이 한계점을 넘어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성은 더욱 증대되였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병진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는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강위력한 선군의 보검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위험천만한 군사적공모결탁으로 얻을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는 미국과 괴뢰사대매국노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10월 30일
평 양

온 겨레를 대단결에로 부르는 불멸의 기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드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의 길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해주신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민족자주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닦아주신 크나큰 공적이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시대의 요구, 단합과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실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을 맞으며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밝힌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온 민족이 서로 접촉, 대화하고 련대련합하는것을 민족대단결5대방침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에는 단결의 원칙과 기치, 방향과 실현방도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민족의 주체적력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민족대단결의 기초이다. 이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6.15통일시대는 민족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 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룩되며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위용떨치게 될것이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할데 대한 방침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단결시켜 조국통일성업을 성취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과 숭고한 덕망의 발현이다.

조선민족은 대대손손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외세에 의해 비록 근 70년간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지만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이 흘러넘치고있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여넘어 하나로 굳게 단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기치이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북남관계가 악화된 속에서는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사이의 단합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고 대단결을 전민족적범위에서 이룩할수도 없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낳는 근원이며 북남관계개선과 민족대단결의 장애로 되고있다.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려나갈수 없고 수습할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면 대결을 피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부추김을 받는 인간쓰레기들이 최근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살포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북남관계는 극도의 파국에로 치닫고있다.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기본장애이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인 외세는 조선의 분렬과 북남사이의 대결을 통해 저들의 리익을 추구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말로는 북남관계개선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핵문제니, 《인권》문제니 하고 법석 떠들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으며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적극 부추기고있다.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반공화국삐라살포의 원흉, 배후조종자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현실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실현의 엄중한 장애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반통일적인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고 그에 계속 추종한다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침략적인 외세를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반역행위이며 민족공조를 외면하고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달리는자들은 용납 못할 매국역적들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는것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뜻을 안고 서로 자유로이 래왕하고 접촉하여야 하며 련대련합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이다. 따라서 북남대화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폭넓은 대화로,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여야 한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단체들과 동포들이 련대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민족대단결을 공고화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철석의 통일애국의지가 어려있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6.15통일시대의 현실을 통해 뚜렷이 과시되였으며 오늘도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위업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민족단합의 영원한 표대로 삼고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김 현 철

친미굴종의식, 북침흉계의 뚜렷한 발로

남조선괴뢰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빌붙어 2015년 12월 1일로 되여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보도에 의하면 괴뢰들은 제46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라는데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저들이 핵심적인 군사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하기로 상전과 합의하였다.

한편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와 미2사단의 화력려단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과 한강이북지역에 계속 남겨두며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정보공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꿍꿍이도 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또다시 연기한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군사주권을 외세에 영구히 내맡기는 희세의 매국역적행위이며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는 그 누구의 《위협》과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른 괴뢰군의 핵심적인 군사능력완비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것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무기한 연기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노릇인가.

이 세상에 남조선괴뢰들처럼 군사주권을 완전포기하고 그것을 외세에게 무한정 내맡기는 쓸개빠진 매국노는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괴뢰패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한 리유에 대하여 《북의 위협에 대응할만 한 독자적능력부족》을 짭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외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고 저들의 흉악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서툰 오그랑수에 불과하다.

현 남조선당국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자기가 집권하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이미 합의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저들의 공약까지 뒤집고 《북의 핵, 미싸일위협》이니, 《준비부족》이니 하고 요란히 떠들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다시금 연기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합리화할수 있겠는가.

괴뢰들의 망동은 미국이 없이는 단 한시도 살수 없다고 하면서 그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동족을 해치려고 발광해온 역적배들의 체질적악습, 친미굴종의식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통해 괴뢰패당은 남조선을 미국의 북침전초기지로 영원히 내맡기고 상전과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을 도발할 흉악한 기도를 낱낱이 드러냈다. 그들이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와 미2사단의 화력려단을 현재의 위치에 계속 남겨두며 미국, 일본과의 군사정보체계를 수립하는 등 3각군사동맹강화에 박차를 가하려 하는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괴뢰들이 상전에게 애걸복걸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미국은 저들의 리기적목적과 음흉한 계책을 손쉽게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미국이 은근히 바라는 문제를 어리석게도 먼저 들고나와 성사시킨 결과 큰 《빚》을 진 괴뢰패당은 그 대가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의 증가, 미국제무기의 대량구입,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배비 등 상전의 날강도적요구를 다 받아물었다. 이 수치를 남조선인민들이 어떻게 참을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 각계가 당국이 군사주권영구포기를 선언한 10월 24일을 《국치일》이라고 개탄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바로 이런 매국노, 대결광신자들때문에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파괴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이 날로 고조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상전의 힘을 빌어 우리를 어째보려고 획책하는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강력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반역의 길로 질주하는 괴뢰패당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참패밖에 없다.

심 철 영

로씨야 미국의 군사적대결책동을 비난

로씨야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가 16일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군사적대결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방장관이 《나토의 문턱》에서 이제는 로씨야무력과 맞서도록 미군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미국이 로씨야국경에서의 작전각본들을 검토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오늘날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한 곳에 긴장상황이 발생하지 않은적이 없다, 더우기 《민주주의추진》작전이후 이 지역들은 류혈적인 혼란을 겪고있다, 실례로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수리아를 들수 있다, 지어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사태에도 미군작전그루빠대표들의 로골적인 간섭이 있었다고 까밝히고 미국은 이러한 긴장격화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파업과 시위

△ 도이췰란드에서 16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져먼윙즈항공회사 비행사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그들은 회사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하여 자기들의 생존권이 심히 위협당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수백편의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20일 지하철도부문 근로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파업을 벌렸다.

그들은 채무위기해소를 구실로 지하철도경영권을 사영회사에 팔아먹으려 하고있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폭로하고 이것은 자기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파업으로 지하철도운행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 이딸리아의 로마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24일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각계층 근로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참가자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출을 줄이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파업으로 렬차와 뻐스운행이 중지되는 등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한다.

다음날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당국의 그릇된 로동법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는 약 100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집회를 열고 당국이 채택하려는 로동법이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것이라는데 대해 규탄하고 그러한 법채택시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팔레스티나인들이 26일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10대의 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이스라엘군의 만행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렸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소년의 령구를 메고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면서 야만적인 살인만행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군대를 내몰아 시위자들을 탄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죽음의 병을 막기 위한 노력

21세기의 흑사병으로 알려진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인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그것은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이 치사률이 매우 높고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과 왁찐이 없는것과 관련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한 연구가 적극 진행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은 필요한 항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단클론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리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먼저 쥐에게 에볼라비루스당단백질을 주입한 후 개개의 항체산생세포를 암세포와 융합시킨다. 융합된 세포는 배양기속에서 계속 분렬되여 단일한 종류의 항체를 산생한다. 대체로 그속에는 감기나 돌림감기비루스에 대한 항체도 섞여있기때문에 잘 골라 에볼라비루스에 대한 특이한 항체를 산생시키는 세포를 선별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연구집단은 에볼라비루스당단백질의 서로 다른 부분과 결합하는 3종의 항체를 확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문제는 항체가 쥐로부터 생겨난다는것이다. 사람의 체내에 이것을 주입하면 면역계통이 항체를 이물로 보고 면역반응을 일으켜 배척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연구집단에서는 항체의 유전자를 클론화하여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집단은 항체를 대량생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식시키기 쉬운 담배속식물의 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하였다.

이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일정한 연구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그것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 환자를 회복시킬수 있는 완전한 치료법으로 될수 없다고 하고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한 왁찐이 시장에 나오자면 적어도 6~10년이 걸린다고도 하고있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있다.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리베리아에서는 국경을 봉쇄하고 극히 중요한 통과지점만 열어놓고있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진 모든 부락을 격리시켰다.

한편 나이제리아에서는 비루스가 퍼진 나라들로부터의 항공운행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비행장들에서는 모든 승객들을 대상하여 에볼라비루스감염증상이 없는가를 검사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비루스가 퍼지는것을 막자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격리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죽음의 병을 물리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월간국제정세개관

현실은 반미성전을 요구한다

10월을 마감짓는 현시점에서도 세계는 에볼라비루스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사망자수는 5 000명계선으로 육박하였다.

광범한 여론은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지역상황을 전쟁터로 비유하고있다. 그만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비루스가 인간의 생명안전과 활동에 미치는 후과는 파국적이다.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것은 비단 에볼라비루스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인도주의사태》, 《반테로》, 《인권보호》, 《핵전파방지》와 같은 화려한 간판밑에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 등의 형태로 뻐젓이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무참히 짓밟고있다.

제재는 세계제패라는 현훈증에 걸려있는 미국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다. 그 자막대기는 철두철미 미국의 리익에 뿌리를 둔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기준이다. 때문에 제재와 간섭의 과녁이 된 나라와 지역들은 례외없이 아메리카제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리해관계와 깊숙이 얽혀있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가 정전상태에로 이행한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다. 그러나 10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미국이 주도한 반로씨야제재소동은 가라앉지 않고있다. 오히려 미집권자는 유엔무대에서까지 로씨야를 《침략자》로 몰아붙이며 유럽에서의 《로씨야위협》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이것은 이번 우크라이나사태가 미국과 나토의 반로씨야전략, 일극세계화전략의 산물이였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준다.

미국의 한 평론가는 우크라이나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이 나라를 유럽동맹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은 로씨야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당국의 중요한 계획이라고 까밝혔다. 미국의 궁극적목적은 강국건설을 지향해나선 로씨야를 제압하여 미국이 판을 치는 유럽,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를 세우자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미국이 앞에서는 회담을 운운하고 뒤돌아앉아서는 대이란제재에 열을 올리는것도, 50여년동안 꾸바에 대한 봉쇄를 중단하지 않고있는것도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저들의 야심적인 지배권수립에 장애로 되기때문이다.

《반테로》의 미명하에 벌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책동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이며 테로행위이다.

미국이 벌리고있는 무분별한 무인기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사상자들이 발생하고있다.

지난 6일 하루동안에만도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서 무인기에 의한 미싸일공격으로 8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미 파키스탄에서는 미국의 수백차에 걸치는 무인기공습으로 수천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생죽음을 당하였다. 파키스탄의 참상은 《테로소멸》을 부르짖으며 미국이 강행하고있는 《반테로전》의 일면에 불과하다. 사실상 10여년동안 계속되여오고있는 미국의 《반테로전》은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량살륙전쟁으로 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11년 한해동안에만도 3 000여명이 미군의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되여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에서도 2003년 미국이 이 나라를 침공한 때로부터 5년동안에 120만 5 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고 100만명이 실종되였다. 미국이 세계도처에 손을 뻗쳐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반테로전》이 전대미문의 국가테로범죄, 특대형인권침해행위라는것은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은 인류를 테로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는 주범이다.

미국이 현재 징벌하겠다고 떠드는 이라크의 순니파반란세력인 《이슬람교국가》는 근원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대중동정책이 빚어낸 비극적산물이다. 볼리비아와 브라질대통령들이 현 이라크위기가 미국의 무력간섭으로 인한 사회및 종교그루빠들의 평화적공존파괴로 초래되였다고 비평한것은 우연치 않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진 격이 된 미국은 《이슬람교국가》에 의해 제2, 제3의 9.11사건이 일어날것 같아 불안에 잠겨있다. 《이슬람교국가》는 《백악관지붕우에 알라신의 기발을 휘날릴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미국이 《이슬람교국가》를 타격한다고 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리아에 대한 공습 등을 강행한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슬람교국가》를 짓뭉갠다는 구실밑에 수리아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수리아정부의 반대파세력을 무장시키는 방법으로 이 나라의 현 정권을 뒤집어엎으려 할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반테로전》을 반미적인 나라들의 합법적정권을 거꾸러뜨리는데 도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달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전례없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소동은 당당한 주권국가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가장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다.

주제넘게도 내정간섭적인 《북조선인권법》까지 채택한 미국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심산으로 유엔인권리사회를 조종하여 리용해먹은데 이어 우리를 반대하는 그 무슨 《결의》까지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세계적범위로 확대시키려 하고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거들어댄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왔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가 도수를 넘어 위험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는것은 지금까지 핵문제를 걸고 벌려온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이 맥을 추지 못한데서부터 출발한것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것이 바로 공화국의 핵보유결단이다.

우리의 핵보검을 없애보려고 끈질기게 벌리고있는 《북핵폐기》소동이나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기 위해 악착스럽게 일으키고있는 전대미문의 《제재》소동, 공화국북반부전역을 강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벌리고있는 핵공갈과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연습이 효력을 보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헐뜯고 사회주의체제를 흔들어보려고 미친듯이 놀아대고있다.

미국의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정책의 과녁은 결코 우리 공화국에만 국한되여있지 않다.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평정하자는것이다. 남조선에 작전반경이 조선반도경외를 훨씬 벗어나는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괴뢰들과 야합하여 침략적인 작전계획들을 완성하고있는것이 그것을 충분히 립증해준다. 《북조선의 핵과 탄도미싸일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면서 미국이 남조선에 한사코 배비하려고 하는 미싸일방위체계를 놓고보자.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인 《싸드》는 대륙간탄도미싸일과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싸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특히 《싸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여있는 《X—밴드》레이다의 탐지거리는 1 000km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중국과 로씨야의 군사정보를 실시간 감시하고 세계적인 미싸일감시망을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우리의 《위협》을 걸고 주변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압박,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책은 드러났다.

10월의 복잡다단한 정세흐름을 되새기며 사람들은 다시금 깨닫고있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절절한 념원이 무엇때문에 소망으로 남아있고 주권존중과 평등을 호소하는 무수한 법전들이 어떻게 되여 한갖 종이장으로만 남아있는가를.

지구상에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인류는 절대로 평온할수 없다.

결론은 무엇인가.

침략의 원흉이며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의 각을 떠 무덤속에 영원히 매장해버리는것이다.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미성전에 나서야 한다.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현실이 정의와 진리를 위한 반미성전을 요구한다.

배 금 희

서방의 위협책동 비난

유엔주재 이란상임대표가 7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뽈럭불가담운동을 대표하여 연설하면서 《반테로》의 간판밑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위협책동을 일삼는 서방나라들을 비난하였다.

강점과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주권국가들의 합법적인 운동은 테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뽈럭불가담운동은 자주적인 나라들을 《테로국가》로 몰아붙이면서 위협하는것을 철저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뽈럭불가담운동은 테로분자들에게 정치, 경제적지원을 주지 말것을 모든 나라들에 호소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사원 강탈시도 규탄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지도자 할리드 마샬이 16일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사원강탈시도를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을 빼앗아 유태인들의것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사원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역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범죄적기도를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적인 빈궁자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17일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인 빈궁자수가 24억명에 달하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41169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